

당신의 나눔,
세상을 잇는
유산이 됩니다

희망브리지,

기부를 넘어

재난 피해자의
최고 파트너

희망브리지는
재난의 ‘예방-대응-회복’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예방
재난취약계층 및
재난대응인력의 건강과
지역공동체 안전역량 강화

대응
재난 시,
즉각적인 생활안정
및 심리지원

회복
일상 복귀와 재기(再起)의
기반 마련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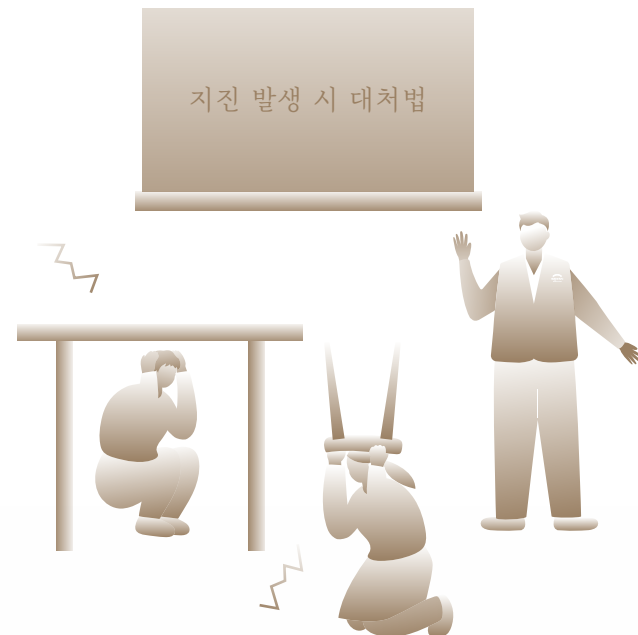
“재난이 닥친 그 순간,
희망브리지는 이미 현장에 있습니다.”

- 긴급구호키트 지원사업 I “긴급한 순간, 즉시 닿는 손길”
- 식료품·생활용품·대피소쉼터 등 재난 시 24시간 내 이재민 지원
- 재난 현장 대응인력 지원체계 구축 I “현장을 지키는 이들을 지원합니다.”
- 재난 긴급 지원 체계 운영, 긴급출동키트 지원 및 회복 프로젝트
- 민관합동 긴급구호 시스템 I “신속한 대응, 함께하는 구호”
- 소방청·지자체·기업 협력으로 신속한 대응 및 구호체계 구축

재난을 미리 막는 힘 PREVENTION

“재난은 예방이
최고의 구호입니다.”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I “배움이 생명을 지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 AI 화재·침수 감지 시스템 구축 I “데이터로 재난을 앞서다.”
- 민간 최초 화재·침수 감지 인공지능 시스템 지원
- 지역 내 안전 인프라 구축 I “마을의 위험을 줄여, 피해를 막습니다.”
- 침수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및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 계절재난 선제적 대비 I “재난을 대비하는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 폭염·한파 등 유형별 필수 물품 키트 제작 및 비축



다시 일어서는 삶을 위해 RECOVERY

“재난은 끝나도,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희망하우스 지원사업 I “무너진 집이 다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 재난피해가정 모듈러 주택 및 주거개선 지원
- 희망도시락 프로젝트 I “식탁 위 함께하는 한 끼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 위기가정 아동 식사지원 및 가족기능 회복 지원
- 재난피해지역 희망이음사업 I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재난피해이웃 일상회복 지원 및 지속돌봄 봉사활동
-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I “가장 약한 곳부터 든든한 울타리를 만듭니다.”
- 주요 재난지역 아동양육시설 아동 성장 지원
- 기후재난 대응 산림복원 캠페인 I “당신이 만드는 희망의숲”
-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 산불지연제 지원
- 해외 기후난민 지원 I “국경을 넘어, 인류의 회복을 잇습니다.”
-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위생·보건 등 지원





희망의숲 캠페인



소방관 긴급 지원



대피소 긴급구호물품 지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긴급구호키트 제작



재난취약계층 아동 지원



재난피해가정 주거 지원



재난피해세대 희망이음사업

재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희망은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61년,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이 함께 만든 희망브리지는
지난 65년 동안 전국의 재난 현장에서
1조 7천억 원의 성금과 7천만 점의 물품을 전달하며
재난피해이웃의 곁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회복을 설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희망브리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재난대응 리더들과 함께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과 ‘희망브리지 아너스레거시’라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재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희망의 유산(Legacy)을 만드는 리더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장

임 채 청

Why Hope bridge

희망브리지가
재난피해이웃과
함께 걸어온 시간

1961년
설립



한국가이드스타
최고 등급 5회

비영리 기관
최고의 신뢰성, 책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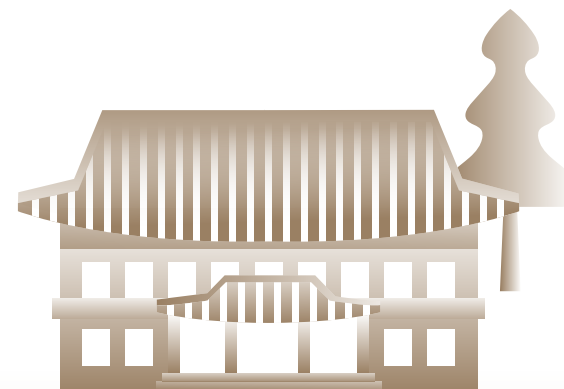


구호물품
누적 지원 수량

7천만 점
이상



희망브리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대한민국 재난대응의
민간 리더십을 함께 만들어 가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국내 유일의
재난구호모금
전문기관

대통령상
5회 표창

재난피해이웃 회복지원금 지원액

1조
7천억 원

재난 전 과정(예방-대응-회복)에 걸친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 법정구호단체로서의 공신력

- 『재해구호법』 제29조에 근거한 법정구호단체
- 5회 대통령 표창, 투명한 회계관리와 검증된 집행 시스템

국가 재난대응 체계 강화, 지역회복력 향상

- 대한민국 모든 대형 재난마다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민간기관
- 산불, 홍수, 지진, 감염병 등 복합재난에 대응한 풍부한 경험

공공-기업-시민을 잇는 협력 허브

- 행정안전부, 소방청, 250여 지자체, 300여 기업과 협력
- 민간 모금·구호·연구를 아우르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부 이후의 임팩트가 명확한 기관

- 단순 전달을 넘어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 프로그램
- 기부자 맞춤형 임팩트 리포트 제공 및 현장 피드백 전달

당신의 기부는 재난의 전 과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희망브리지는 재난 예방, 재난 발생 즉시 대응과 이후의 일상회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재난피해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과 희망브리지 아너스레거시 기부자님의 따뜻한 선택이 있습니다.

“
아이들의 눈빛이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교육 - 어린이·청소년 안전 역량 강화

불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넘어져 다치면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따라 해보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선생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무서울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부는 아이들이 위험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태도’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
끊어진 줄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희망이음 - 재난 후 정서·사회적 회복 프로그램

집을 복구하고, 생필품을 채운 뒤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금이 남습니다.

희망이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 준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도 다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부는 물질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 닿게 만드는 회복의 온기입니다.



“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재민 대피소 긴급 지원

폭우로 집을 잃은 한 어머니는 대피소에서 받은 작은 구호키트 하나에 아이를 씻기고 눕힐 수 있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첫 밤이 너무 두려웠는데... 그 혼란 속에서 구호키트가 가장 큰 위로였어요.”

기부는 재난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빛입니다.

소방관 및 현장 대응인력 지원

화재와 구조 현장은 길고 고됩니다. 대원들은 식사를 거르는 날이 더 많고, 젖은 옷과 먼지에 익숙해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기부자님의 후원으로 전달된 따뜻한 식사와 간편한 간식, 담요·수건·세면도구 등 생활용품은 대원들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챙겨 주는 마음이... 다시 현장으로 갈 힘이 됩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아너스레거시 기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유산입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레거시
가수 전정국(방탄소년단)

STORY 1 | “단발적인 기부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재난이 반복될수록 느꼈습니다.

한 번 돕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희망브리지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구조가 명확했고,
제 기부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혜영 회원에게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은 ‘기부 명단’이 아니라
재난대응의 방향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방송인 이혜영

STORY 2 | “기부 이후에도 계속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부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후의 변화와 현장을 함께 공유받는다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책임 있게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은 기부 이후의 과정과
결과까지 공유하며 신뢰가 쌓이는
기부 경험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배우 천우희

기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의 회원들은

선한 마음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재난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속 가능한 변화가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함께 설계하는 기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김봉진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배우 황찬성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프로게이머 정지훈(초비)

아너스클럽 회원들이 말하는 ‘함께한다는 것’

“기부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재난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과제’로 보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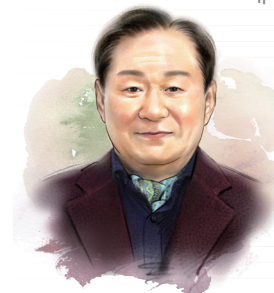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보게 됐습니다.”

STORY 3 |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남기기보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은 그 선택을 ‘유산’으로 만들어 주는 구조였습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은 지금의 나눔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부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청학산업 대표 육만수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작가 김은숙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아너스레거시에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회원들은 단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희망브리지의 예방-대응-회복 전 과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방송인 박지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배우 문가영

리더십에는 존경이,

나눔에는 예우가
함께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희망의 유산으로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공동 예우

웰컴키트 제공

배지, 인증패 등
클럽에 따른 굿즈

명예 헌정

Donor's Wall 등재,
개별 위촉식

전담 매니저 배정

관심 지원분야에 맞춘
사업 디자인 설계 및 운영

VIP 초청

회장 초청 만찬,
주요 행사 및 클럽데이 초대

임팩트 보고서

기부자 이름의 기금 운영 후,
개별 성과보고서 제공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재난의 순간, 희망을 직접 전하는 리더”

- 재난현장 봉사 및 구호 참여
 - 회원 간 정기 네트워킹 및 교류행사
 - 개인 및 기업 대상 재난안전교육 제공
 - 네이밍 기회 제공 : 기부자명 지원사업 진행, 도너스월 등재
- 누적 1억 원 이상
또는 5년 내 1억 원 약정



희망브리지 아너스레거시

“기부를 넘어, 재난대응의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 국내·외 재난현장 및 복구사업 동행
 - 재난대응 자문·연구 네트워크 참여
 - 맞춤형 Legacy Book / 미니 다큐 제작
 - 가족 대상 ‘차세대 나눔리더 캠프’ 초청
- 누적 10억 원 이상
또는 5년 내 10억 원 약정

1

상담 및 안내

전담 매니저 전화 및 방문 상담

개별 관심사 확인 및 지원사업 연결

2

기부 및 가입서 작성

전용 계좌로 기부금 납부

3

위촉식 & 웰컴키트 제공

개별 또는 비공식 진행 가능

4

회원 활동

회원 간 네트워킹 기회

재난현장 방문 혹은 봉사활동 동행

개별 성과보고서 제공

우리는 가장 어두운 재난 속에서도
서로의 내일을 지키며
희망의 유산을 함께 쌓아가는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아너스레거시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